잇단 '이통사 유출·해킹 사태'… 국민 불안 증폭

정부·국회, 직권조사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박차

기업 '자진신고' 의존 구조 문제
국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정부도 한계 인정… "체계 바꿔야"

정보보호 공시·ISMS 실효성 논란
실질적 제재 수단 도입 의견 제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3300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최근 SK텔레콤과 KT 등 주요 통신사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현행 제도 탓에 조사가 지연되고 피해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가 직접 칼을 빼 들고, 해킹 정황만으로도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섰다.

1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연달아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건으로 국회와 정부 모두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유심(USIM) 해킹이 발생한 데 이어, 이달에는 KT 가입자 280여 명이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LG유플러스 역시 미국 보안 전문지가 해킹 의혹을 제기했으나 "침해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서버 접근 제어를 맡은 협력사 시큐어키가 지난 7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KISA가 실제 유출 데이터를 근거로 재차 신고를 요청했음에도 LG유플러스가 이를 외면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결국 '셀프신고'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이번 사태는 기업이 침해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를 미루면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실제로 과징금이나 집단소송을 우려해 기업이 고의로 신고를 회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과 전문가 사회에서 "정부가 해킹 정황만으로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힘을 얻는 이유다.

국회는 이미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기업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침해사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해킹 정황이 발견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 판단에 따라 정부가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은폐와 지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도 현 제도의 한계를 인정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 체계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침해사고가 의심되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2차관을 중심으로 '정보보호 체계 대응 TF'를 꾸리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논란은 기존 제도의 실효성으로 번졌다. 국내 통신 3사는 모두 정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보유하지만, 대규모 해킹을 막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14년 KT, 2023년 LG유플러스 해킹 당시에도 인증을 유지했다"며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지적했다.

보안 투자 현황을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 역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KT와 LG유플러스는 올해 공시에서 보안 인력이 전년 대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참고해 IT 예산의 일정 비율을 보안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SMS 인증 관리·감독도 강화가 필요하다. 중대한 해킹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통신사들은 전자결제, 상품권 판매 등 사실상 금융업을 수행하고 있어 금융사 수준의 보안 의무를 져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자진신고에만 의존하면 누가 먼저 손해 보려 하겠느냐"며 "과징금과 소송 리스크 때문에 '쉬쉬'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황만으로도 조사할 권한을 가져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해커 "고객정보 확보" SKT "유출 사실 없어"

국제 해커 조직이 SK텔레콤(SKT) 고객 정보를 대량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협박에 나서자, SK텔레콤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6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자신들을 '스캐터드 랩서스'라고 밝힌 해킹 단체는 텔레그램을 통해 2700만 명에 달하는 SK텔레콤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공표했다. 이들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된 100GB 분량의 샘플 데이터를 약 1400만 원에 판매하겠다며, SK텔레콤 경영진이 접촉해오지 않으면 전체 데이터와 시스템 관리자 권한까지 모두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해커 집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SK텔레콤은 해커들이 증거로 제시한 웹사이트 캡처 화면과 데이터 샘플 등을 분석한 결과, 자사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이며, 이들이 주장하는 데이터 역시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번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발생했던 SK텔레콤 유심 인증서버 해킹 사건과 피해 주장 규모가 약 2700만 명으로 동일해 눈길을 끈다. 다만 당시에는 약 9.7GB 분량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이번에 해커들이 주장하는 100GB와는 데이터양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김서현 기자

SKT, 오픈AI와 B2C 협력

'챗GPT 플러스' 구독 프로모션
B2B·그룹차원 협력확대 검토도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휴대폰으로 챗GPT를 켜는 여성의 이미지.

SK텔레콤은 국내 통신사 가운데 유일하게 오픈AI와 B2C 협력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10일 공식화된 오픈AI의 한국 오피스 출범을 계기로 이뤄졌다.

양사는 2023년 글로벌 AI 해커톤 공동 개최, MIT GenAI 임팩트 컨소시엄 공동 참여 등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파트너십을 확대하게 됐다.

첫 단계로 SKT는 '챗GPT 플러스' 구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규 및 3개월 이상 미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유료 결제 시 2개월을 추가 제공하는 혜택이다. SKT 고객은 9월 19일부터 내년 2월까지 'T우주'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챗GPT 플러스는 무료 버전에 비해 빠른 응답 속도와 새로운 기능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제공하는 유료 구독 서비스다. 음성 모드, 영상 생성, 심층 리서치 등 확장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심층 리서치'는 다단계 추론을 통해 대량의 온라인 정보를 분석·종합해 리포트 형태로 결과를 제공한다.

SKT와 오픈AI는 B2C를 넘어 B2B와 그룹 차원의 협력 확대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국내 고객이 글로벌 수준의 AI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AI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력은 SKT의 AI 전략인 '자강과 협력' 기조와 맞닿아 있다. SKT는 AWS, 앤트로픽, 퍼플렉시티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국내 AI 혁신기업 연합체 K-AI 얼라이언스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자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비수도권 최대 규모 AI 데이터센터 'SK AI 데이터센터 울산'과 GPUaaS(서비스이용형 GPU) 클러스터 '해인'을 구축 중이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LG U+, 웹툰 기반 숏드라마 공개

'스튜디오 엑스 플러스 유'와 맞손
오는 30일부터 총 8편 순차적 릴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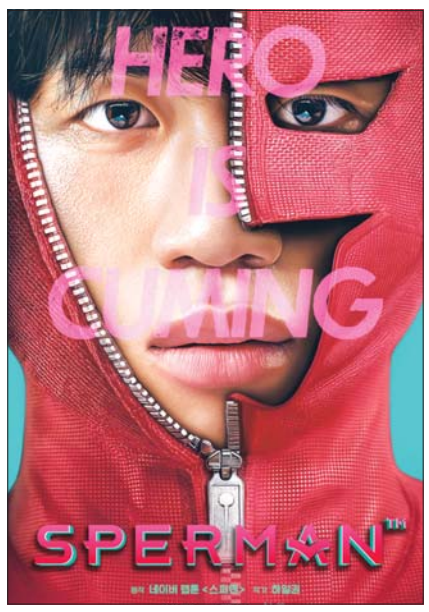
네이버는 LG유플러스의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스튜디오 엑스 플러스 유(STUDIO X+U)'와 협업해 만든 웹툰 IP(지식재산권) 기반의 숏드라마를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막장 악녀 ▲자판귀 ▲자매전쟁 ▲스퍼맨 등 네이버웹툰의 인기 IP 4편이 숏드라마로 되살아난다. 기존 웹툰 원작을 기반으로 드라마화된 작품들은 원작 재현과 함께 숏폼 포맷에 최적화된 연출과 구성으로 팬층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STUDIO X+U의 오리지널 IP로 제작된 ▲수지수지 ▲신들린 로맨스 ▲엮이면 죽는다 ▲상사에게 저지른 나쁜 짓 등 신작 4편도 함께 공개된다.

네이버는 이번 협업을 통해 웹툰 IP의 영상화 역량과 숏폼 콘텐츠 제작 전문성을 결합, 변화하는 콘텐츠 소비 흐름에 최적화된 짧고 몰입도 높은 숏드라마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총 8편의 숏드라마는 '막장 악녀'를 시작으로 오는 30부터 네이버TV와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에서 순차적으로 릴리즈된다.



네이버가 LG유플러스와 손잡고 네이버웹툰 '스퍼맨'을 숏드라마로 만들어 공개한다. /네이버

특히 치지직에서는 드라마 공개와 함께 실시간 같이보기 콘텐츠도 만나볼 수 있다. 숏드라마 '막장 악녀'의 주연 배우 4인과 치지직에서 활동 중인 인기 스트리머가 드라마를 시청하며 후일담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누는 코멘터리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네이버앱서비스의 이재후 부문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이용자들이 다채로운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CJ올리브네트웍스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CJ올리브네트웍스가 오는 24일까지 CJ그룹의 디지털 전환을 함께 할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비즈니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업자원관리(ERP) 시스템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인사 등 총 10개다.

비즈니스 시스템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야는 식품·유통·물류·엔터테인먼트 등 CJ 계열사의 통합 시스템 구축과 신규 플랫폼을 개발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핵심 영역이다. 비즈니스 시스템 엔지니어는 그룹 전반의 업무 운영 시스템을 맡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대고객 서비스와 플랫폼 개발을 담당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올해 AI, 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를 전략적으로 강화하며 관련 채용을 확대한다. AI 엔지니어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AI 기술 개발과 자연어 기반 AI 솔루션 서비스화, 에이전트 기반 응용 서비스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CJ그룹 계열사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품질과 보안을 관리한다.

서류 심사, AI 역량검사, 직무별 테스트 및 인성검사, 1·2차 면접, 인턴십 순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 2차 면접에 합격한 지원자는 3주간의 인턴십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합격이 확정된다.

/김현정 기자